

- 주요 뉴스: 미국 9월 구인건수, 전월비 증가.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대가 다소 약화
 - ECB 라가르드 총재, 경기침체 위험에도 금리인상 지속할 필요
 - 영란은행, 보유국채 매각 시작. 단기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
 - 중국 10월 차이신 제조업 PMI, 전월비 상승. 다만 봉쇄 조치 영향은 지속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양호한 노동시장 지표 및 이에 따른 통화정책 영향 전망 등이 반영
주가 하락[-0.4%], 달러화 약보합[-0.01%], 금리 하락[-1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통화긴축 완화 기대 감소 등으로 매도 증가
유로 Stoxx600지수는 광산 및 소매업 관련주 강세 등으로 0.6%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11월 FOMC 전망 관련 의견 상충 등이 영향
유로화가치는 0.1% 하락, 엔화는 0.3% 절상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11월 FOMC 앞두고 소폭의 등락이 발생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1bp 하락
- ※ 원/달러 1M NDF환율(1417.1원, -0.1원) 약보합, 한국 CDS 하락

		11/1일	10/31일	전일대비			11/1일	10/31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856.1	3,872.0	-0.41%	국채 금리 10y	미국	4.04%	4.05%	-1bp
	유럽	414.61	412.20	0.58%		독일	2.13%	2.14%	-1bp
	중국	2,969.2	2,893.5	2.62%		영국	3.47%	3.52%	-5bp
	일본	27,679	27,587	0.33%	CDS 5y	한국	69bp	70bp	-1bp
	한국	2,335.2	2,293.6	1.81%		중국	122bp	126bp	-4bp
환율	달러지수	111.51	111.53	-0.01%	위험 지표	EMBI+	-	451	-
	유로화	0.9877	0.9882	-0.05%		VIX	25.81	25.88	-0.27%
	엔화	148.27	148.71	0.30%		WTI유	88.37	86.53	2.13%
	위안화	7.2775	7.3050	0.38%	원자재	구리	347.3	337.5	2.89%
	원화	1,417.2	1,424.3	0.50%		금	1,648.0	1,633.6	0.88%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9월 구인건수, 전월비 증가.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대가 다소 약화

- 노동부에 따르면, 9월 구인건수는 1072만건으로 전월(1028만건) 및 예상치(985만건) 상회. 이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여전히 매우 강력하다는 의미. 특히 해고가 대폭 감소(130.0만건→16.2만건)하여 기업들은 여전히 기존 직원 유지에 대한 의지가 있음을 시사
- 이에 시장에서는 이번 주 예정된 11월 FOMC에서 0.75%p 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12월 FOMC에서도 연준이 인플레이션 안정을 명분으로 공격적인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 CME FedWatch Tool에 따르면, 12월의 경우 0.75%p와 0.50%p 인상 가능성은 각각 49.2%, 44.7%
- 구직 기회가 여전히 많다는 좋은 소식은 연준이 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나쁜 소식이 될 소지(FWDBONDS의 Christopher Rupkey)
- 여전히 12월 FOMC에서의 0.50%p 금리인상을 예상. 다만 경기회복을 나타내는 경제지표는 높은 수준의 연방기금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등의 매파적 의사소통을 유도할 가능성(Citigroup의 Andrew Hollenhorst)
- 한편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징후도 존재. 10월 ISM 제조업 PMI가 50.2를 기록하여 '20년 5월 이후 최저. 이번 결과는 기업들이 향후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을 대비했기 때문(ISM의 Timothy Fiore)
- 특히 하위항목 가운데 제조업체들이 지급한 가격지수는 큰 폭 하락(51.7→46.6)했고, 이는 물가상승 압력을 높이는 공급병목이 점차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ECB 라가르드 총재, 경기침체 위험에도 금리인상 지속할 필요

- ECB의 책무는 물가안정이며 이를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 인플레이션이 아직 목표(2.0%)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확실하기에, 계속해서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부연
- 독일 중앙은행 나겔 총재는 ECB의 금리인상 종료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발언. 또한 내년 초부터는 보유자산 매각에 나서야 한다고 첨언

■ 영란은행, 보유국채 매각 시작. 단기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

- 7.5억파운드 규모로 잔존만기가 3~7년인 국채를 매도했으며, 12월까지 매도 규모는 60억파운드에 이를 전망. 장기채보다 단기채 시장이 안정적이어서 매각 진행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기대(Toronto-Dominion Bank)

■ 중국 총리, 더 나은 경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

- 리커창 총리는 안정적이고 건전하며 지속적인 경제성장 촉진을 추구하고 있다고 발언. 아울러 최근 예상하지 못했던 역풍이 존재하지만, 경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경제성장이 유지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

■ 중국 10월 차이신 제조업 PMI, 전월비 상승. 다만 봉쇄 조치 영향은 지속

- 10월 차이신 제조업 PMI는 49.2를 기록하여 전월(48.2) 대비 개선. 하지만 확장과 위축의 기준인 50을 하회. 최근 대내외 여건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우며, 기업활동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차이신 그룹의 Wang Zhe)

■ 일본 재무상, 비공개 외환시장 개입은 효과 극대화가 목적

- 슌이치 재무상은 외환시장 개입 공개 시기와 비공개 시기가 있는데, 이러한 결정은 모두 최대한의 변동성 안정을 얻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 다만 전문가들은 엔화 환율의 변동성 확대는 결국 연준의 통화정책에 좌우된다고 평가

■ 호주 중앙은행, 0.25%p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전망은 상향

- 11월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정책금리를 0.25%p 높은 2.85%로 결정. 금리인상 폭을 전월에 이어 다시 한 번 낮은 수준에서 유지. 금리인상 폭이 0.25%p에 그친 것은 그 동안 인상 속도가 다소 빠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CommSec의 Craig James). 연말 인플레이션 전망은 상향(7.75%→8.0%)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11/1 현지시각 기준)

- 영국 10월 S&P 글로벌/CIPS 제조업 PMI: 46.2, 9월(48.4), 예상치(45.8)

■ 주요 경제 이벤트(11/2 현지시각 기준)

- 11월 FOMC, 미국 10월 ADP 민간고용, 독일 10월 실업률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 시장에서는 미국경제의 하강을 우려 - Financial Times

(Economists warn of deeper US downturn as Fed keeps up inflation fight)

- 다수의 전문가들은 연준의 통화긴축 강화가 심각한 경기침체를 의미한다고 경고. 수요증가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둔화가 어느 수준까지 용인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관심 사항
- 11월 FOMC의 0.75%p 인상 이후 연방기금금리의 유도 목표 수준은 경제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일각에서는 연방기금금리 목표가 내년 상반기 5%에서 이르면서 정점을 통과할 것으로 추정
- 다른 한편에서는 급격한 금리인상이 실물경제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통화긴축 속도를 완만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금융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방향을 권고하는 의견도 상존

■ 중국의 생산기지로서의 이점, 제로 코로나 등으로 크게 퇴색될 가능성 - 블룸버그

(Xi's Covid Zero Is Killing China's iPhone Advantage)

- 4월 상하이 봉쇄에 이어 최근 정저우 공장에서도 노동자들이 코로나19 봉쇄에 반발하여 무단 탈출하는 등 다국적 기업들의 생산차질이 잇따라 발생
- 지난 30년간 지속된 풍부한 노동력과 저임금이라는 중국의 장점이 감소. 금년에는 전력난에 이어 봉쇄에 따른 생산부진 등이 겹치면서 다국적 기업들의 중국 이탈 현상이 심화. 일례로 애플의 중국매출 비중은 '15년 대비 7%p 낮은 상황
- 견조한 성장과 함께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인도, 베트남 등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어 해외기업들의 이전이 중국경제의 추가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소지

■ 러시아의 곡물협정 중단, 최빈국 식량안보 위기 우려 가중 - Financial Time

(‘Ray of hope’ shatters as Ukraine grain deal collapses)

- 러시아 대통령이 흑해 곡물 수출 협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 세계 밀 수출의 약 1/3을 공급하고 있는 만큼 흑해 협정의 결렬은 농산물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으며, 실제로 협정 중단 직후 곡물시장에서 밀과 옥수수 선물 가격이 급등
- 국제구호협회(IRC)는 전쟁 장기화와 함께 내년 농가들의 생산량 감축 등으로 이어지면서 특히 예멘과 소말리아 같은 최빈국들이 영향 받을 수 있다고 경고

■ 세계화의 종식, 지정학적 갈등에 파괴적 형태로 전개될 소지 - Financial Times

(Geopolitics is the biggest threat to globalisation)

- 일부에서는 세계화의 종식이 단순한 경제적 디커플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냉전시대보다 더욱 많은 불협화음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이는 패권경쟁을 위한 상대국 약화 시도와 불신의 악순환 등이 원인. 세계경제는 네거티브섬(Negative-Sum) 경쟁구도로 향할 우려
- 강대국 간 불신은 결국 경제적 교역활동을 저해하며, 이러한 관계 분열은 인류의 생존에도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 이는 핵전쟁 발발 시 불가피한 대규모 피해 및 국가 간 공동협력이 요구되는 기후변화 대응 차질 등에 기인

■ 미중 반도체 전쟁, 공급망 디커플링으로 이어질 가능성 - Financial Times

(We must prepare for the reality of the Chips Wars)

-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 등으로 공급망 디커플링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중국은 이미 7년 전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서방의 기술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노력
- 미중 반도체 전쟁이 심화될수록 중국은 희토류 및 저가 반도체 수출 등을 제한할 것이며, 이는 미국과 동맹국의 자동차 및 전자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
- 미국 기업들은 미중 디커플링의 속도에 관심. 서방 주요국들의 경우 인도 등 우호국으로부터의 저가 반도체 조달을 늘리면서 공급선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

■ 연준의 물가안정 달성, 완전고용과의 상충 논란으로 어려움에 직면 - 블룸버그

(Fed's Inflation Fight Is Becoming a Battle Over Jobs, Too)

■ 독일,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는데 많은 난관이 존재 - Financial Times

(Germany struggles with its dependency on China)

■ 채권시장의 실질금리, 인플레이션 예측 능력이 기대보다 낮은 편 - 블룸버그

(Real Yields Are the Market's Big Lie)

■ 영국 채권시장, 정상화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 - Financial Times

(UK companies pay heavy price in creaking bond market)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